

### 아름다운 백두산은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백두산은 남다른 곳이다. 그냥 어느 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에 오른다. 우리의 조상들도 오래 전부터 이미 그랬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신화가 이곳에서 만들어졌고, 처음 세운 나라가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모든 산들이 여기에서 뻗어내렸다. 다양한 기후로 높이에 따라 검은단비, 사향노루, 재두루미와 같은 여러 가지 동물 그리고 백리향, 산할미꽃, 구름국화 등 보기도문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용택

## 올바른 역사이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오래 전부터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때로는 갈등의 시기도 있었으나 공존을 통한 상호 번영과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이 세 나라가 경험한 침략과 전쟁의 기억은 60여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도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의 역사에 대한 자국 중심의 다른 이해로 인해 역사 갈등은 학문적 의견 차이에 그치지 않고 정치 외교적 현안이 되어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한 것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 철저한 학문적 논증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 갈등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은 결과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 같은 국민적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좁은 시각이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 속에서 역사가 갖는 의미를 밝혀 공통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이점은 공동과제로 연구를 지속하는 등 진지하고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이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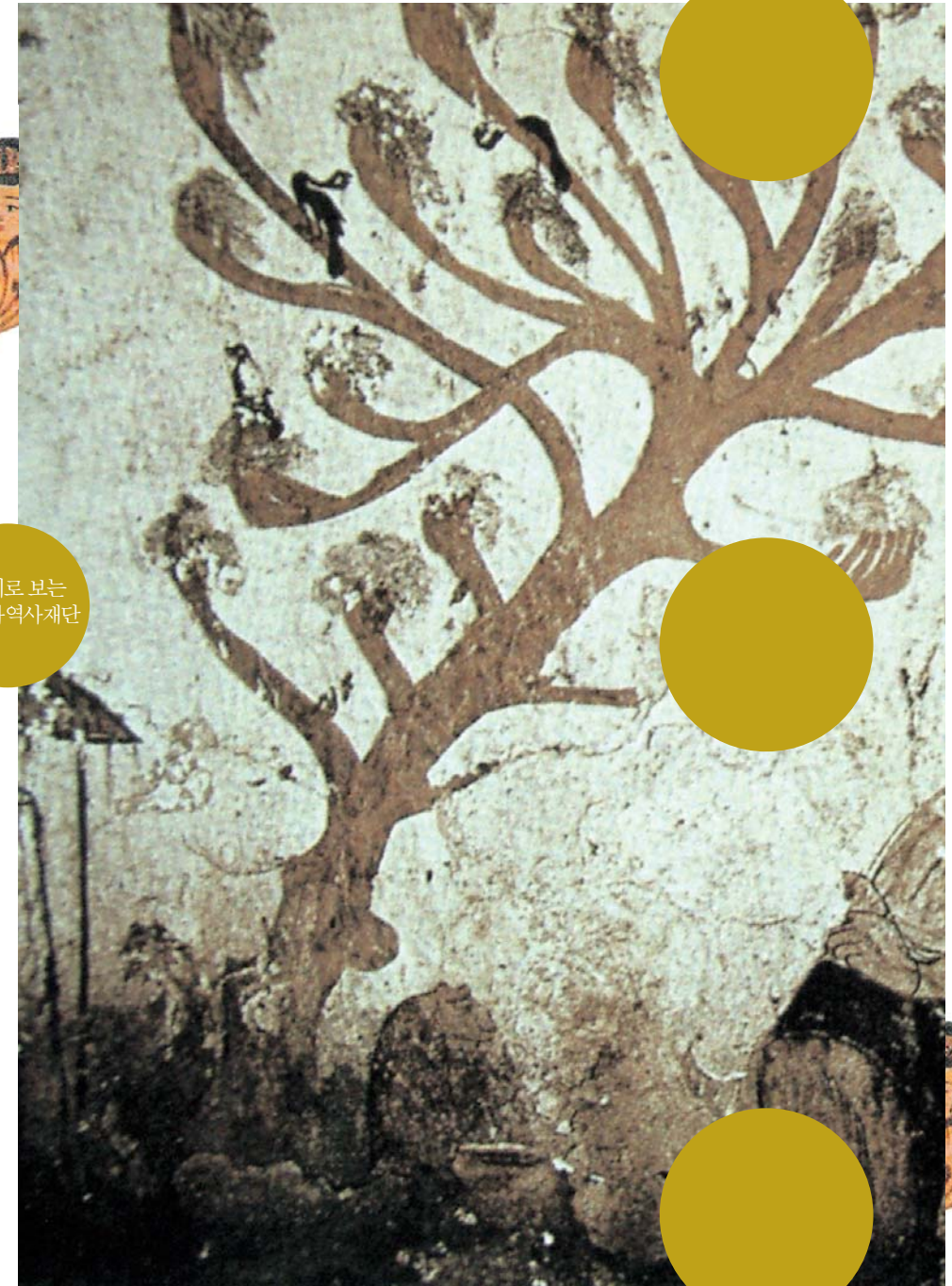
**이미지**  
 아시아를 나타내는 한자 '아(亞)' 를 기본 모티브로 하여, 전통가옥, 마주보고 앉은 사람, 귀면(鬼面)의 세 가지 형상이 중복되어 보이도록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습니다.

**의미**  
 '동북아시아' 라는 커다란 지붕 아래에서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 평화와 안정을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면형상은 동북아역사재단이 올바른 역사이해를 도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지키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상**  
 주요 색조는 전통적으로 번영과 부를 상징하는 녹색과 안정을 상징하는 갈색을 사용하여 보다 세련된 느낌을 더하였습니다.



이미지로 보는 동북아역사재단



### 2005

- 4.8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7호) 제정
- 4.20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출범
- 8.8 『동북아역사재단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8. 18)
- 9.27 법안 국무회의 심의
- 12.6 국회 교육위 유기홍의원 등 23명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06

- 2.14 법안 교육위 상정
- 4.18 국회 교육위, 공청회 개최
- 5.2 국회 본회의 통과
- 5.1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관보 게재
- 8.8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 8.20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
- 9.1 김용덕 초대 이사장 임명
- 9.28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식
- 11.27 『동북아역사재단뉴스』 창간

[www.historyfoundation.or.kr](http://www.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런 일을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동북아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착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역사주권을 지켜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워진 연구정책기관입니다.

우리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북아에서 역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여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역사 인식 및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밝히고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역사 연구 교류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국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고도 진지한 학문 교류를 통해 공동의 역사 인식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축하연

또한 동북아역사자료센터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를 비롯한 동북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문적 접근을 원활하게 하여 동북아 역사에 대한 인식을 좁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상대방 역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며 상호간에 상대방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에 서서 역사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재단은 역사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세계사적 시각과 국제적 안목 그리고 거시적이고 균형 잡힌 학문적 논증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 기념 국제학술회의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과 함께 전문가들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문가 육성에 힘써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역사 갈등 해소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의 역사주권도 확립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조화로운 추구는 가능하며 지금 해야만 하는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독도시민단체연행행사

왜냐하면 역사문제가 심각한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역사주권 수호는 분쟁만을 야기할 뿐, 미완성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대회

또한 철저한 학문적 논증이 없는 역사주권 수호 의지는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동북아 역사에 대한 인식의 공유라는 국제적인 사명감과 우리의 역사주권 수호라는 민족적인 사명감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도출해내어 동북아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를 통한 상호이해와 번영을 선도하는 연구정책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학술 워크숍

## 동북아역사재단 주요사업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와 세계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잘못된 역사관과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직시, 장기적 종합적 연구 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 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 전략기획실

역사 관련 대응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 자료실 운영

### 제1연구실

한·일 관계사, 일본사 연구 및 지원 | 한·일 역사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 제2연구실

한·중 관계사, 중국사 연구 및 지원 | 한·중 역사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 제3연구실

영토·영해 연구 | 해양법·국제법 연구 및 지원

### 교류홍보실

국내외 홍보 총괄 | 시민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 운영기획실

이사회 운영과 행정 지원 | 전산실 관리 운영

## 중국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중국의 역사 왜곡은 매우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역사 왜곡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 분석, 대응 논리 개발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과제입니다.

한국 고대사를 임의로 중국 변방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의 결과물인 ‘동북변강연구총서’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 그 동안의 경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합니다.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 관련 연구, 몽골·만주·연해주 등 북방 지역과 민족 관련 발굴과 조사·연구, 고려·조선의 북방 관계 역사 연구, 중국의 만주 지배 실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국제적으로 중국 자연유산으로 공인받으려는 움직임과 발해 유적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시도 등에 대한 대책도 연구를 통해 마련합니다.

왜곡된 역사는 교육을 통해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 왜곡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북아역사지도 편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는 일제 식민지배의 상처를 지닌 이웃 나라 국민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한·일 간 올바른 역사 이해가 절실합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일본 역사의 어떠한 근본적인 구조 속에서 발흥하며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그 결과물을 논문집 혹은 단행본으로 출간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 관련 역사유적 및 일본의 우경화 상징 유적지나 기념물, 신사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장기적·지속적으로 추진, 일본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합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사의 위상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선정·지원합니다.

조선병탄시 각종 침략조약 및 한일협정 관련 과거사 보상 문제 등 국제법 연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법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도록 지원합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사의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한국사·한일관계사·국제법 분야의 국내학술서 혹은 논문을 번역·출판하여 해외 주요 연구기관에 배포합니다.



무용총 벽화에 그려진 여자 시종들

#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전략 수립

역사가 국가 간 갈등의 소재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재단의 전략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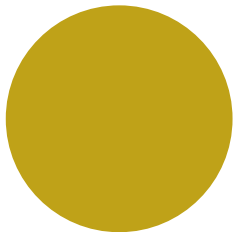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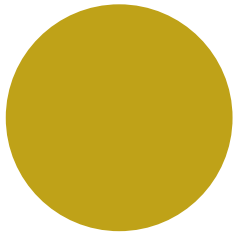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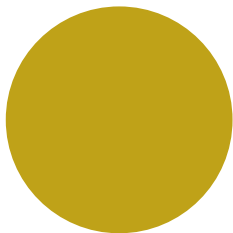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하도록 개설서로 편찬, 보급하여 올바른 역사 이해를 돕는 일을 합니다.

연구 성과들을 우리들만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인들이 동북아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접하도록 각종 학술 서적과 연구 자료를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번역, 해외에 배포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 국민의 역사인식을 심층 비교 연구하여 원인을 진단하고 공동의 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국제규모의 학술회의와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벽화, 성 등 고구려유물과 같은 각종 역사 및 독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기존 연구 성과들은 물론 향후 발굴하고 발표, 수집될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한·중·일 지식 정보센터로 발전시켜, 연구 기반을 마련합니다.



# 영토·영해 문제 연구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중국 내 일부 시민단체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움직임 등 영토·영해 문제는 우리의 영토 주권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를 저해할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적으로 다소 부족했던 독도 등 영토와 동해 등 영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특히 타국의 영토·영해 관련 분쟁 해결 사례 등을 분석합니다.

영토 문제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 국가의 주장 근거와 관련 움직임을 파악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대응책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동해 독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위해 독도가 언제부터 우리 땅인지, 동해가 언제부터 '동해'로 불려왔는지 등과 같은 역사적 연원을 담은 자료집과 논문집 등을 다국어로 편찬합니다.

학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무용총 벽화에 그려진 춤추는 다섯명의 무용수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역사재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방식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사의 흐름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공감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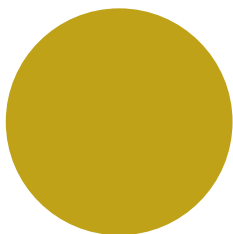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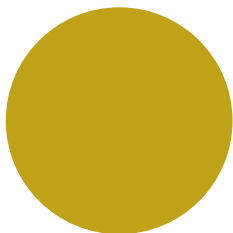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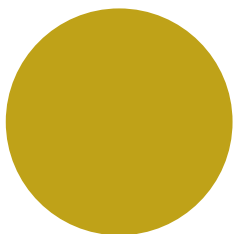
역사교과서 왜곡 등 동북아 역사의 주요현안 문제를 주제로 세계적 석학을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통된 역사인식을 도출하며, 동북아역사분쟁에 대한 세계의 보편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프랑스·폴란드 등 공동역사 교재를 만들어 사용중인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중·일 공동 역사 교재를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동북아 시민들의 바람직한 역사 인식의 저변을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한·일 역사가회의’, ‘한·중 역사가회의’를 매년 개최, 동아시아권에서의 역사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확한 역사상의 확립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동연구보고서와 같은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역사가회의’로 확대 개편합니다.

한·중·일 역사연구자 교류를 통해 공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시아 역사문제의 현안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한·일, 한·중, 한·중·일 관계사와 관련된 ‘동북아시아 관계사 기획총서’를 발간합니다.



# 시민단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전략적 기획 홍보

역사 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재단의 주요 임무입니다.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관점에서 역사갈등 문제를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등 전세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역사 관련 국제 NGO들의 주요 활동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동북아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을 후원합니다.

지난 시기 한국의 일제 피해자와 피해자단체 지원 등으로 민간인들의 상호교류와 이해에 앞장서 온 해외의 대표적 활동가와 양심적 인사들을 한국으로 초청, 그간의 경험을 나누고 신뢰를 돈독히 함으로써 국제 지지여론 조성에 기여합니다.

국민들이 누구나 읽고 접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 성과들을 역사 교육 자료 및 교재로 개발합니다. 또 역사 교육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상설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재도 개발, 이들을 대상으로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도 추진합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 독도 등을 소재로 국제적 감각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정부부처·유관 기관과 연계, 해외 교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국제적 지지여론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해외 전문 채널 등에 대한 역사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사업도 전개하는 한편, 재단 소식지 ‘동북아역사재단뉴스’를 매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발행·배포하여 재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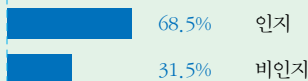
무용총 벽화의 뽀나팔을 부는 사람

# 여론조사, 국민이 말합니다

국민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 방향과 위상을 알아보고, 의견을 듣기 위해 2006년 '동북아역사인식 전문가 여론조사' 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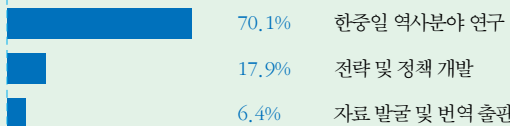
##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을 알고 계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8.5%)이 '알고 있다' 고 응답했다. 출범 초 기입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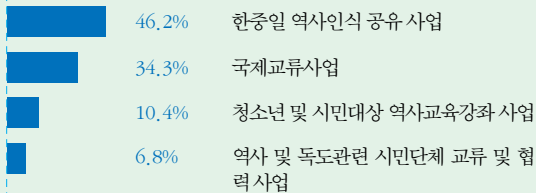
## 동북아역사재단의 중점 추진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역사 분야 연구' (70.1%)에 대한 의견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략 및 정책 개발' (17.9%)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두 번째로 높게 제시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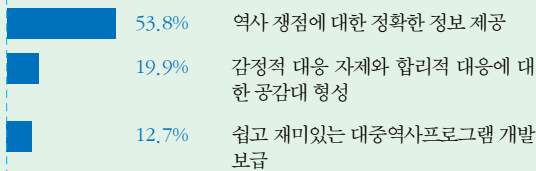
## 학계·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 역점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 학계, 시민단체와의 교류 협력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한국, 중국, 일본 역사 인식 공유사업' (46.2%) 이라는 견해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북아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교류 사업' (34.3%)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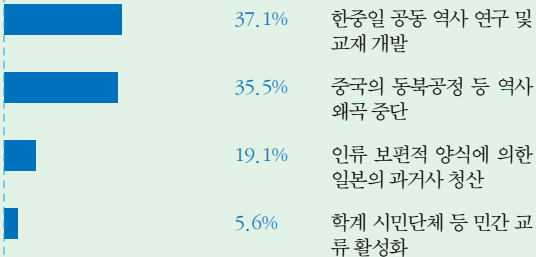
## 대국민 홍보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이 대국민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역사 쟁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이라는 견해가 과반수 이상(5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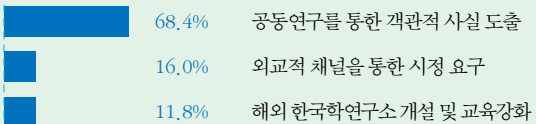
## 미래지향적 동북아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지향적 동북아 관계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공동 역사 연구 및 교재 개발' (37.1%)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 중단' (35.5%)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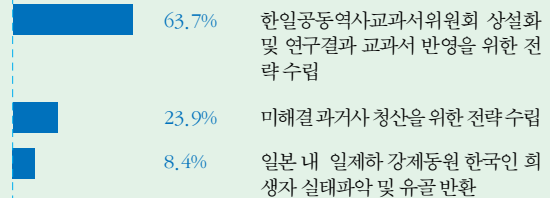
## 중국의 한국사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한국 상·고대사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인지자 187명 대상)으로는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68.4%)이 '한국, 중국 학자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한 객관적 사실 도출'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밖에 '외교적 채널을 이용한 시정요구' (16.0%), '해외 한국학 연구소 개설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 강화' (11.8%) 등이 제시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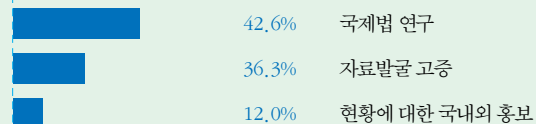
## 동북아역사재단이 관심 가져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일 과거사와 관련한 미해결 과제 중 동북아역사재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로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63.7%)이 '한국과 일본 공동 역사교과서위원회 상설화 및 연구 결과 교과서 반영을 위한 전략 수립'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 재단의 독도 관련 중점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독도 관련 사업 중에서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기 위한 국제법 연구' (42.6%)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독도 관련 고서 등 자료 발굴 및 고증' (36.3%), '독도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국내외 홍보' (12.0%)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고구려

# 城



한도성 남문터



홀승골성 동쪽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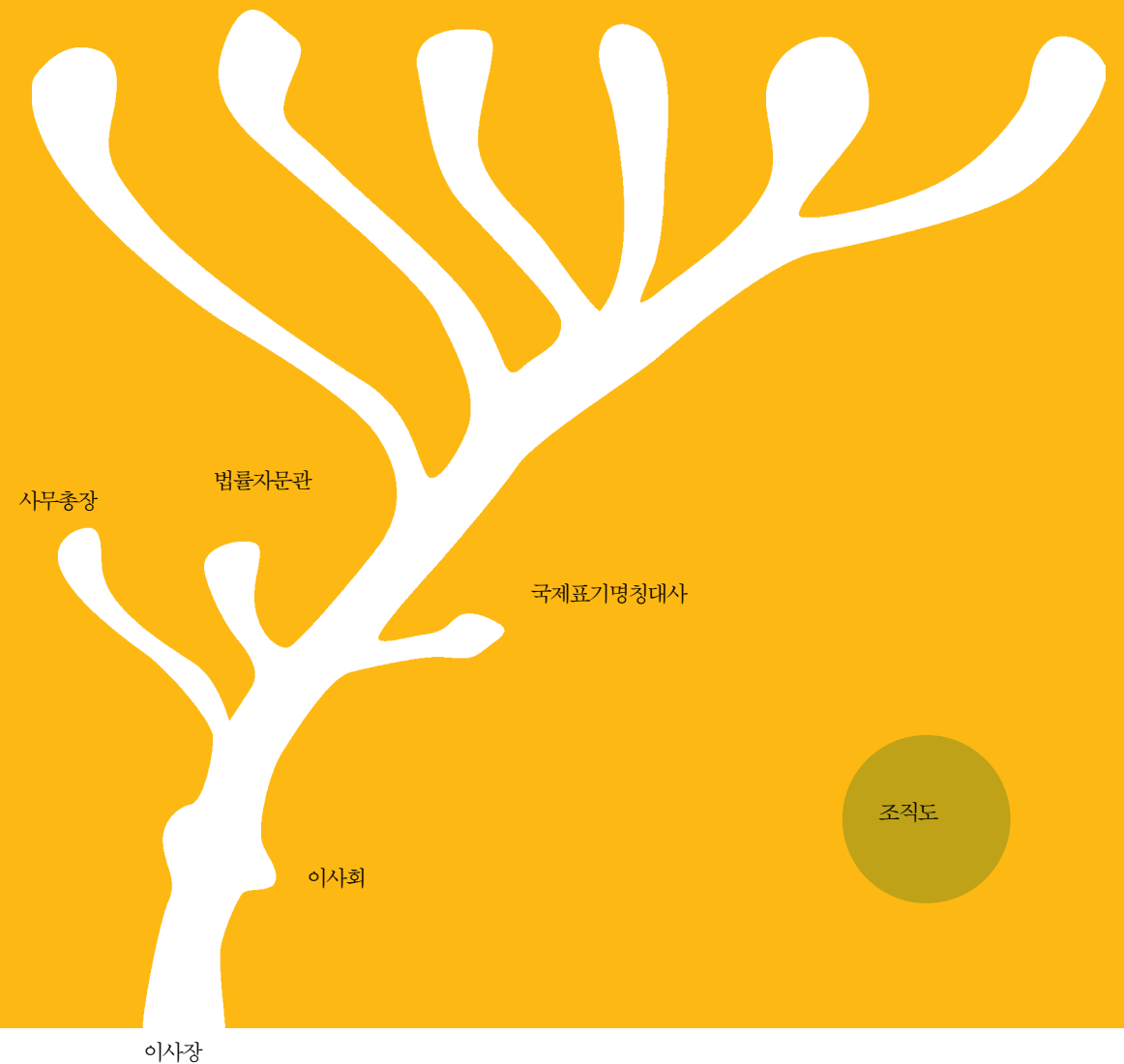
위패산성 동벽



백암성 서남벽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동북아의 역사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착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전략기획실 제1연구실 제2연구실 제3연구실 교류홍보실 운영기획실



전략기획실  
역사 관련 대응 전략 수립 | 번역 및 출판 업무  
t 02 2012 6045, f 02 2012 6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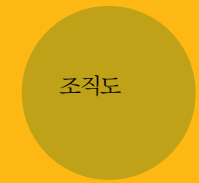
제1연구실  
일본사, 한일관계사 연구 및 지원 | 한·일 역사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t 02 2012 6067, f 02 2012 6180

제2연구실  
한국고대사 및 한·중관계 연구 및 지원 | 한중 역사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t 02 2012 6088, f 02 2012 6183

제3연구실  
동해표기 및 독도 연구 | 해양영토분쟁 관련 국제법 연구 및 지원  
t 02 2012 6123, f 02 2012 6186

교류홍보실  
국내외 홍보 총괄 | 시민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t 02 2012 6156, f 02 2012 6189

운영기획실  
이사회 운영 및 지원 | 서무, 인사, 예산 회계 및 법규 관련 업무 | 전산실 관리 운영  
t 02 2012 6024, f 02 2012 6175



이사장

# 항상 열려있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제, 홈페이지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의 마음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연구, 학술 행사, 교류 협력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료들이 듬뿍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연구 논문과 간행물 등도 있으며, 특히 동영상과 사진을 통한 디지털 자료는 교육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 관련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제안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상 열려있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로 오십시오.



[www.historyfoundation.or.kr](http://www.historyfoundation.or.kr)



## 독도, 우리 야생화의 살맛나는 고향

사람들은 독도에 가서 놀란다. 돌 틈에서, 또는 여기저기에서 예쁜 꽃들이 피어 꽃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독도를 단순히 바위섬 썸으로 알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해국, 팽이밥, 슬패랭이꽃, 날개하늘나리 등은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우리 땅의 꽃 이름들이다.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된 것만도 무려 78종이란다. 우리 야생화가 동해의 거친 바닷바람 속에서 계절을 따라 그렇게 피고 진다. 그 가운데는 약용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것도 있으니, 그만큼 아껴야 할 것들이다. 따라서 독도는 야생화에게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한 고향인 셈이다.



